

일주문



묘허 스님 초청 천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1029 일 천도법회 12번째 49재일을 맞아 6월 13일 대적광전에서 묘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해남 미항사 특별수행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6월 18~25일 특별수행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를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14~60세.061533-3521



원효성사 탄생 1388주년 다례제
경산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은 6월 10일 원효성사전에 원효성사 탄생 1388주년 다례제와 국악한마당 등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몽골국제유정마라톤대회
한몽문화교류진흥원 이사장 흥인 스님은 6월 25일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제3회 몽골국제유정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0531746-1588



중 항주대 학술대회 참석
중국대 흥기상 총장은 6월 9일 중국 항주대에서 열린 '의천 탄신 9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사천대학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종교수행의 미래' 학술회의
미래학불교학회 장휘옥 회장은 6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종교 사회와 종교수행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한다.02745-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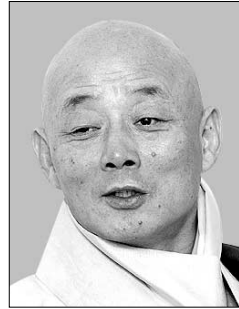
직할시찰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서울광역시도회 김진관 회장은 6월 25일 오후 2시~26일 오후 12시 서울 봉은사에서 직할시찰 신도임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불기행 정기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 여대동 회장은 6월 18~19일 양양 낙산사와 평강 월정사 일대에서 회원대상 정기연수회를 개최한다.

“남·북 함께 만드는 잡지에 불심 담을 터”

‘민족21’ 발행인 말은 명진 스님



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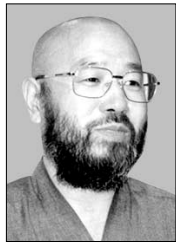
“예전에 비해 남북관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을 위해 뛰고 있는 일꾼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력이거나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불교계의 대표적 통일운동가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사진)이 지난 6월 초 통일잡지 <민족21>의 발행인으로 추대됐다. 그동안 스님들이 시민단체를 이끌어 많은 활동을 벌여 왔지만, 전문분야의 수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명진 스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사의 뜻을 밝혔지만, 잡지가 존재 기로에 서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유일하게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잡지를 보다 많은 불자들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7월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명진 스님은 “최근 일어났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다시 풀리는 것 같다”며 “남북문화의 공동본모인 불교계가 화해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차

전국교정위원중앙협의회 심의회장 혜명 스님



강유신 기자

“새로운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여 년간 재소자 교정·교화 활동을 벌인 대전 혜명정사 주지 혜명 스님(사진)이 5월 31일 열린 전국교정위원중앙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심의회장에 선출됐다.

6월 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스님은 먼저 재소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재소자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행자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각 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 교도소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교정교화 자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교정 활동이 아니라 수행자에 맞는 ‘맞춤형 교정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교도관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30년 교도관 임은 15년 징역살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도관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혜명 스님은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직업센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단체인 전국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전국에 분포한 49개 교도소에서 수행자 교정교화 활동을 펴고 있는 4700여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전국협의체로 지난 1998년 11월 창립됐다. 혜명 스님의 임기는 2년이다.

‘잊혀진 가람탐험’ 27일 출판기념회

장지현 시인, 송현클럽서



김철우 기자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사진)이 6월 27일 오후 6시 30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여시아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묶어 발간한 장 처장은 양양 진전사지, 여주 고담사지, 충주 미륵대원지, 익산 미륵사지, 제주 법화사지 등 남한 9개도에 흩어져 있는 35곳 폐사지를 소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이 참석하며, 김회경 해운을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02942-0144-5

주한 태국대사 낙산사 복원 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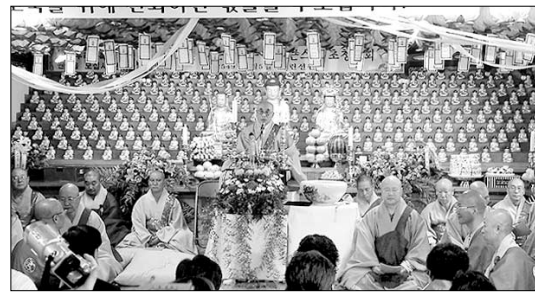
바신 티라베크만 주한 태국대사는 6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올연등축제 문화마당에 부스를 설치해 음식을 판매한 이의금을 낙산사 복원 성금으로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법장 스님은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혜사 작은음악회



팔공산 은혜사(주지 법타)는 6월 9일 경내 솔밭에서 신도화합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200여명이 동참한 음악회는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후원으로 열렸다. 김성보의 색소폰연주, 이종영의 오르간 연주 등이 진행됐다.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 개원식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주지 법현) 개원식이 6월 5일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현 스님은 “부처님의 희망의 빛을 남과 함께 나누는 도량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들의 의정 일우,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무주 안국사, 중국 소림사와 문화교류



무주 안국사(주지 원행)는 6월 5일 ‘무주태권도 공원 유지기금’ 일환으로 무주를 찾은 천송린 중국 응용시장과 송산 소림사 무술시범단의 방문을 받고 상호 문화교류를 약속했다. 이날 중국 방문단 20여명은 안국사 성보박물관(세계의 불상) 관람, 기념 타종 등 사찰참배를 했다.

본원종 부산경남 중무원장 취임법회



본원종 부산경남교구 중무원장은 6월 3일 청련사 법당에서 중무원장 지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본원종 부총종 동강 스님, 총회위원장 우담 스님 등 1백여 종도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우 스님은 “사찰 현황을 파악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한 20년의 노래 담았어요” 창작 찬불동요집 낸 최미선 대불어 사무국장



“열아홉 살에 어린이 법회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며 만든 찬불 동요를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최미선 사무국장(38·사진)은 39차

대불어 연수회가 열린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자신이 작곡한 찬불동요 80여곡이 수록된 ‘2005 최미선 찬불동요집 참 고운 벗들에게’ 1천원여 권을 발표했다. 이 찬불동요집은 최미선 국장의 남편인 이동원

(40·법승) 씨가 아내 몰래, 아내의 어린이 포교 20주년을 기념해 법보사용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교정 때 돌들이 낳았어요. 저 밖에는 교정을 볼 사람이 없

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이들 부부는 어린이 포교를 하면서 만나 결혼까지 하고 지금도 어린이 포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도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미희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님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Table with 2 columns: 1년 교과목 and 2년 교과목. Lists various Buddhist studies courses like 법철사상, 불교사학,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심리학,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한국불교사, 불교미술학, 불교경제문화학, 무진장스님, 박종, 김계성, 김호귀, 종석스님, 암도스님, 최종석, 김상현, 김성영, 최봉수, 박종, 모주스님, 정영섭, 권기호, 윤영수, 황안스님, 주명철, 정병호, 최차식.

Table with 6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Details enrollment numbers, requirements, fees, and dates for the Buddhist university courses.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경제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110-1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역)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성터 064) 743-4184

* 특선시상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재단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수신통종오가피 禮獻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종교(예헌)이란? 명칭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음에 국영이게 속하여 뜻으로 바치던 신성물을 일컫는 말... 24년 900만개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통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만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제배자 생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며... 수신통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일 001번부터 90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